

II. 남북국 시대의 전개

주제 12) 고려의 광종과 성종의 업적

학 교	
학 번	
이 름	

1. 고려 태조 사후 나타난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위를 둘러싼 왕건의 후손을 등에 업은 외척들의 갈등으로 왕권이 약화 혜종이 2년만에 병으로 죽으면서 왕권 약화가 가속화 	<p>정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새롭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으로 천도를 계획했으나 실패하였고 정종은 4년 만에 죽음</p>

2. ()의 즉위와 개혁정책

1) () : (인안, 광덕, 대흥, 건흥, 준풍)이라는 연호 사용

2) ()의 실시

① 내용:

② 기대효과

- (귀족 / 권문세족 / 호족)의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 문화적) 기반 (약화 / 강화)
-

3) ()의 도입

① 중국의 관리등용 제도인 ()을(를) ()의 건의로 수용

② (혈통 / 시험)에 따른 인재선발로 (가문이 좋은 / 실력있는) 인재선발

⇒ (가문이 좋고 / 능력있고) 국왕에게 (대항하는 / 충성하는) 인재선발 가능

4) 호족, 공신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

* 아래 그림 중 왼쪽 내용에 들어갈 적절한 그림을 붙이세요.

* 관련없는 내용은 여기에 붙여주세요.

2. 성종의 즉위와 활동

- 1) 광종이 죽은 뒤 경종이 즉위하자 일시적으로 광종의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2) 경종이 죽은 뒤 성종이 즉위하면서 국가의 각종 제도를 정비

① 중앙정치제도: () 실시	② 지방제도 정비
③ 빈민 구제를 위한 () 설치	④ 물가조절기구인 () 설치

이제 고려는 당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2성'과 이호·애·영·향·공의 '6부'를 두어 나라를 다스릴 것이오!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어 지방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것이오!

지방의 주요 거점 12곳에 목(牧)을 설치하여, 중앙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것이오!

춘궁기, 곡식을 빌려드립니다! 가을 추수 때 갚으시면 됩니다.

풍년일 때 곡식을 사들여,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물가를 조절합니다!

관련없는 그림은 여기에 겹쳐서 붙여주세요.

3) 국가의 정치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고위 관리들에게 시무책을 올릴 것을 명령. 그 중 ()의 () 채택

① 5조정적평: 성종 이전의 왕들의 업적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작성한 글

* 다음 왕과 5조정적평에 들어가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태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왕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해방된 노비 중 일부를 다시 노비신분으로 환원하는 정책 실시 ○ 정치의 원칙을 알지 못하여 권력있는 신하에게 정치를 맡김
혜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아랫 사람을 예로써 대접,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 ○ 쌓기를 등용한 후로부터 재주없는 자들이 부당하게 등용하며 지나치게 국왕 중심의 정치를 실시 ○ 불교를 지나치게 믿어 국고를 낭비, 말년에는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임
정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자 시절에는 스승을 존경하고 관리들을 잘 대우 ○ 이후 의심이 많아져 좌우에 항상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으며 장졸들에게 상벌을 균등히 하지 못하여 2년 만에 병사
광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실의 반란이 있을 것을 막아 고려를 유지 ○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였고 이를 왕의 고집대로 밀어붙임
경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후한 덕과 넓은 도량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사실을 높이 평가 ○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예로써 큰 나라를 섬겼으며 도의로써 인접 국가와 사귀고 아랫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하게 대함

② ()의 주요 내용

* 다음 중 시무 28조의 내용을 옳게 기록한 내용에만 체크를 해봅시다.

-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를 바탕으로 삼고, 수양을 하는 데는 불교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는 백성들의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므로, 중국의 문화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식대로만 고집해야 한다.
- 지방 호족들이 땅을 다스리게 내버려 두지 말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지방관)를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 왕은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신하들과 의논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
- 지나치게 화려한 궁궐 장식이나 옷차림을 줄여서 나라의 재정을 아껴야 한다.
- 지나치게 많은 사원을 짓는 것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치국)'으로 불교를 '수신(몸을 닦는 것)'의 근본으로 보아 유교와 불교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임금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에 담겨있는 정치적 입장(* 해당되는 그림에 체크표시 해주세요.)

○ 유교와 불교에 대한 입장



○ 불교행사에 대한 입장



○ 중국 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



○ 왕과 신하와의 관계

